

계룡건설 계백로가수원교 확장공사

근로자가 주인인 현장! 무재해 현장!



▲ 이태화 소장

조석으로 살갓을 스치는 기운이 차갑고, 푸르른 하늘은 드높기만 하다. 오늘 대전을 향하는 들녘에도 드높은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담고 함박웃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린다.

모습이 참으로 예뻐 보이는 것이 어느새 가을의 문턱을 지나 왔음을 느끼게 한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했던가. 누구를 향한 사색인지 가슴 가득히 담고 무재해 준공을 향하는 곳이 있어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대전에도착했다.

대전 서북권에 위치한 “계백로(가수원교) 확장공사” 현장이 오늘 찾은 곳인데, 계룡건설(이태화 소장)에서 무재해 시공이 한창이다.

모든 것을 함께 함으로써 소속감을 갖게 하고 모든 것에 참여시킴으로써 자긍심을 갖게 하는 자율안전에서부터 무재해 시공이 시작되는 이 곳에는 현장 근로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태화 소장과 김대식 안전관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찰떡 공합을 자랑하는 두 사람

건설인은 지구를 꾸미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는 이태화 소장은 2000년 1월부터 지구를 디자인 하는 팀장인 현장 소장으로서 지금 이 곳 현장에까지 무재해를 이어가고 있는 무재해 소장이다.

건설안전리포트

이태화 소장이 이끄는 현장에서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없는 데에는 정리·정돈과 청결상태 유지에서 시작된다.

계룡건설 이시구 사장이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상처리를 절대로 결재하지 않기로 유명함을 볼 때, 이태화 소장의 지속적인 무재해는 의미가 크다.

이태화 소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건설인 하면 강한 선입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정과 따뜻함이 느껴진다.

이런 그를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인 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단점으로 편견을 갖기 쉽지만 스스로도 자신을 인간미라는 컨셉으로 꾸미고 있는 이태화 소장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어한다. 오히려 지금까지 사고없이 현장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평소 글쓰는 것을 즐기고, 메모하는 것을 습관화 할 정도로 생각이 많은 이태화 소장은 이러한 생각이 현장 소장으로 있으면서 근로자를 향하는 생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은 현장 소장들과 함께 공합을 맞춰가는 안전관리자는 으레 힘이 들거라는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 김대식 안전관리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

이 현장이 처음인 새내기 안전인 김대식 안전관리자는 이곳의 경험이 지금부터 펼쳐질 안전인으로서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이태화 소장들과 함께 공합을 생각이 깊은 상관과 함께 공합을 맞춰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펼쳐가는 그는 지금의 경험이 앞으로 나아가할 안전인으로서의 길에 가장 큰 기준이고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사람의 공합 정도를 주변에서는 99%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무재해 준공은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무재해의 기틀이 되는 “무재해 90일 운동”

지난해 계룡건설 전체의 평균 재해율은 0.24이고 금년도에는 0.22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 실적에 못지 않게 안전 수준 또한 성장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비결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은 7년전부터 시행해온 “무재해 90일 운동”이고, 이 운동 앞에는 당현장이 있다.

계룡건설 본사에서도 추천할 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선두주자격인 이곳은 오래 전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해온 “무재해 90일 운동”에도 앞장서왔다.

건설현장은 깨끗해질 수 없고 위험한 곳이라는 편견을 지우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현장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업재해통계와 계룡건설에서 그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가장 취약한 기간 90일을 정하고 그기간동안 “일반점검표”와 “Clean 점검표”의 차별화를 통해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평가하는 운동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순위는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상위 5위까지의 현장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마일리지는 인사고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 어느 목표치를 달성하면 포상을 수령함으로써 자율안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이 운동 효과는 여러 면에서 볼수있다.

적극적인 안전활동 전개

본 공사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공정은 정림육교 상행선 건설이라고 이곳 사람들은 말한다. 하부로 호남선 철도가 통과하고, 특히 KIX개통과 맞물려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았다.

시민들이 현장을 통행할 수밖 없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 또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시공 당시 인근 계룡육교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관으로 부터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여러 환경이 악조건으로 발생하였다.


지금은 무사히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이렇게 되기에는 모든 직원과 현장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 한시공을 이행해준 결과라고 말한다.

그중 작업시작전 전개한 위험예지활동 강화와 공법

변경(일반 Con'c개기 → D.W.S공법)은 적극적인 안전 활동으로 평가받고있다. 10월 말이면 하행선에 대해 같은 작업을 해야한다.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이곳에서는 상행선을 안전 시공한 경험을 토대로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태화 소장은 평소 돌탑을 좋아한다. 하나 하나 쌓아 올리는 장인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좋아하는 이유 일거라 생각이 든다. 요즘 이러한 돌탑을 사진에 담기 위해 사진에 심취해 있다.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적극성을 지니고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재해 준공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태화 소장과의 같이 적극성을 떨치지 않으면 안된다.

돌탑을 쌓는 장인의 마음과 늘 처음에 잘하자라는 초심을 버리지 않는 당 현장에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후 현장에서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덕 기자〉

